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오정*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17. 1. 15(일) ~ 2. 5(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컬리지 라고 해서 캠퍼스 규모가 굉장히 작을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 생각했던 것만큼 작지는 안았다. 카페테리아, 휴식장소, 도서관, 서점, 카페테리아 등 필요한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었다.
수업	본인 포함 15명의 순천향대 학생들이 분반 없이 한 클래스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강사는 Tanya 선생님이었고 단 하루 만에 학생들의 이름을 외우셔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부르며 발표를 자주 시키셨다. 수업시간에는 인쇄물 묶음인 '바인더'를 매일 썼는데 무게가 꽤 나갔지만 따로 배정받은 사물함이 없어서 들고 다녀야 했다. 보통 하루에 2~3명의 파트너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거나 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했다. 거의 매일 발표가 있었지만 어려운 발표가 아니고 파트너와 같이 하는 것이어서 부담이 적었다. 과제는 매일 한 페이지 씩 있었다. 홈스테이 호스트를 대상으로 간단한 인터뷰를 하는 과제 혹은 현장 체험 학습에 나갔을 때 조별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가는 것 등 이었다. 또 Journal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Tanya가 특정 주제에 대해서 짧은 글을 써오는 과제도 있었다. 오전 수업은 9시부터 12시까지 하고 1시간 점심시간 후에 3시까지 수업을 하였다.
Activity	(1) 랑가라 커리큘럼 Activity - 벤쿠버 뮤지엄 : 벤쿠버 역사 박물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시대별로 전시관을 나눠놓아 관람하기 편리했고 세 명 씩 조를 만들어서 한 전시관을 조사하고 다음 날 조사내용을 정리해 제출하는 과제가 있었다. 박물관 근처에 키칠라노 비치가 있어서 활동이 끝난 후에 잠깐 둘러보는 것도 좋다. - 컬링 : 굽이 없는 편한 신발과 활동하기 좋은 따뜻한 복장이 필요하다.

	아이스링크같은 곳에서 활동하는 것이라 오래 있으면 굉장히 추워진다. - 그랜빌 아일랜드 : 하나의 마을처럼 구성되어 있었다. 퍼블릭 마켓에는 각종 먹거리들과 메이플 시럽, 과일가게, 빵가게 등이 있었고 밖에는 극장, 예술인들, 미술 대학 등이 있었다. 미술품을 전시하는 스튜디오와 수공예품을 전시하는 상점들이 많아서 우리나라의 인사동 쌈짓길 같은 느낌이 들었다. 조별로 상인들을 인터뷰하는 과제가 있었다. - 스노우 슈잉 : 시모어 마운틴에 올라가서 활동을 했다. 산 아래보다 훨씬 춥고 햇살이 많이 비추었다. 신발에 장치를 부착하고 눈 덮인 산을 오르내리는 활동이다. 운동화보다는 굽이 없는 부츠가 적절하다. - 벤쿠버 아쿠아리움 : 스탠리 파크 안에 위치하였다. 국내의 아쿠아리움과 특별한 차이는 없다. 활동이 끝나고 스탠리 파크를 돌아다니는 것도 좋다. (2) 개인 Activity - 캐나다 플레이스 : 경치가 좋아서 사진 찍기에 좋다. 그만큼 날씨가 좋은 날에 가는 것이 이득이다. 'Fly over'라고 하는 4D를 보는 것을 추천한다. 랑가라에서 나눠준 emergency card를 보여주면 학생할인을 받아서 2만원 정도로 볼 수 있다. - 캐필라노 : 캐나다 플레이스 앞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40분 가량 가면 나온다. 자연경관을 즐기기 좋은 장소이다. - 그라우스 마운틴 : Sea bus를 타고 도착해 산 정상으로 가면 벤쿠버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즐기는 사람이 많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첫째 주에는 비가 자주 오더니 둘째, 셋재 주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았다. 그래도 언제 비가 올지 모르는 변덕스런 기후여서 아주 화창한 날이 아니라면 작은 우산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다. 출국 전날에 눈이 왔었는데, 한 번 오면 제대로 폭설이 내리는 것 같다. 비와 눈 때문에 신발을 두 개 이상 필수로 챙겨야 한다.
안전	우리나라보다 해가 짧다고 느꼈다. 1,2월에는 저녁 5시만 돼도 깜깜하고 주택가에 사람들이 많아 다니지 않는다. 다행히 주택가에서 위험에 처했던 상황은 없었지만 Downtown은 더 위험한 것 같다. waterfront역 주변에서 벗어나 gastown 골목으로 다니다 보면 갱단이나 homeless people이 자주 보인다. 버스 정류장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돈을 달라는 현지인도 마주친 적이 있다. 해가 지면 확실히 더 주의해야 한다.

숙소	학교기숙사( ) 홈스테이 (O) 외부 숙소( ) 기타( ) 홈스테이 가정 분들이 잘 대해주셨다. 첫 번 째 집에서 불편함이 생겨서 6일째 되는 날 홈스테이 집을 옮겼다.
식사	학교식당( ) 홈스테이 (O) 외부식당 (O) 기타( ) 아침에는 홈스테이 집에서 팬케이크, 에그스크램블, 시리얼 등을 먹었고 점심에는 홈스테이 맘이 싸주신 도시락(토스트/누들/볶음밥 등)을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먹었다. 아침, 점심이 한국에서 만큼 푸짐하지 않았다. 저녁에는 매일 친구들과 외식을 했다.
교통	한 달 정기권 compass card를 받아서 썼다. 스카이트레인의 경우, 동네별로 1zone, 2zone 이렇게 요금이 다르게 책정되어서 1zone인 벤쿠버에서 2zone인 리치몬드나 버너비에 가려면 교통카드에 요금을 추가해서 써야했다. 아침에 학교 가는 길에는 버스를 두 번을 타서 갔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및 여행자보험	약 1,200,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약 420,000원	매일 저녁 외식+ 학교 카페테리아/카페
쇼핑	약 200,000원	의류, 향수, 화장품
관광지 입장료	약 130,000원	많이 돌아다닌 편임
기념품	약 50,000원	자석, 열쇠고리, 메이플시럽, 메이플쿠키
기타	약 50,000원	현지 유심칩, 생활용품
합계	약 850,00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한국과는 생활패턴이 달라서 새롭게 적응해야할 필요가 있었다. 벤쿠버 사람들은 하루 일과를 일찍 마치는 편이라서 씻거나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우리보다 이르다. 샤워시간도 짧은 편이라서 욕실을 늦지 않은 시간에 오래 걸리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다. 음식은 아침 점심을 굉장히 소박하게 먹는 편이라서 배가 고플 수가 있다. 한국 컵라면을 몇 개 챙겨가서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나누어 먹을 때가 있었다. 컵라면은 마트에서 잘 팔기 때문에 굳이 챙겨가지 않아도 된다.

컬링, 스노우슈잉 등 스포츠 활동을 할 때 편한 복장이 필수여서 옷을 챙길 때 참고하면 좋다. 신발도 운동화 한 켤레, 부츠 한 켤레 이런 식으로 최소 두 켤레 이상 준비하는 것이 좋다.

학교수업이 3시에 끝나고 집으로 바로 들어간 적이 없고 친구들과 매일 놀러 다녔다. 그러다보니 저녁도 항상 외식을 하곤 했다. 게다가 메뉴를 고를 때 저렴한 가격을 우선시하지 않아서 식비로 꽤 많은 돈을 지출했다. 음식뿐 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tax가 따로 붙고 음식점에서는 tip을 주는 문화가 있어서 식비가 더 나온 것도 있다.

한국에서 환전한 현금은 30만원 정도였고 다 쓴 다음에는 현지에서 master card가 되는 ATM에서 20만원 정도 현금을 뽑아 쓰고 나머지 쇼핑을 할 때에는 체크카드를 썼다. 현지에서 현금을 뽑을 때 수수료가 많이 들지 않으니 일부는 미리 환전한 현금을 챙겨가고 다 쓴 후에는 현지 ATM에서 출금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ATM은 쇼핑몰이나 상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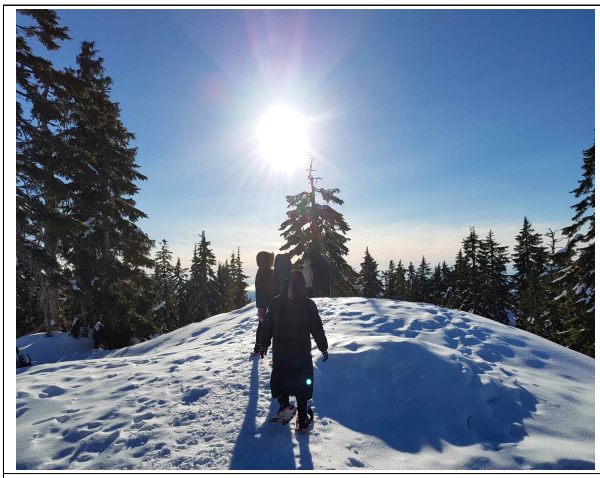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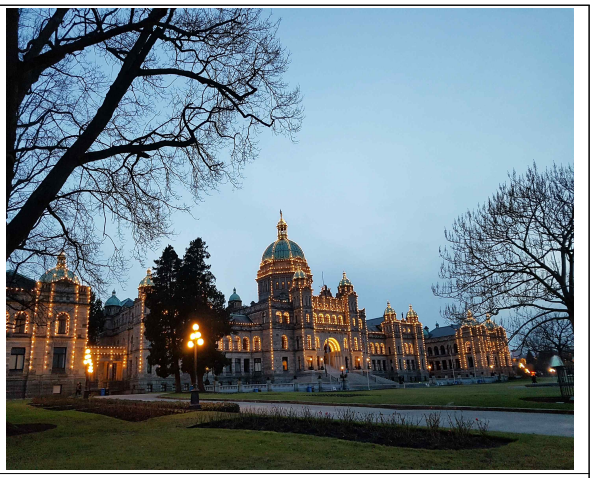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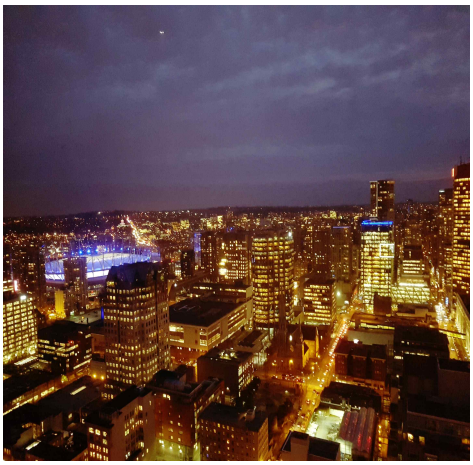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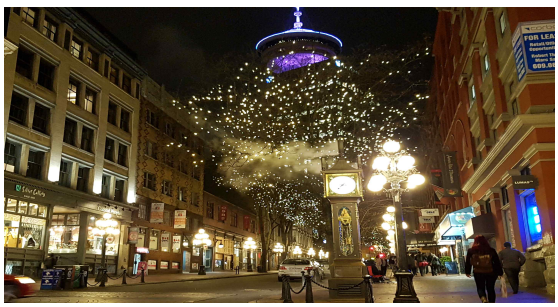
벤쿠버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이다. 랑가라 컬리지만 봐도 그렇고 홈스테이 동네에서도, 버스에서도 등등 어디에서든지 느낄 수 있었다. 특히 홈스테이를 했던 동네에는 동양계 사람들이 많아서 위화감이 없었다. 인종이 다양한 만큼 문화도 다양했고 인종차별이 없어서 좋았다.

벤쿠버 시내는 대체로 안전한 편이지만 역시 우리나라만큼 안전한 곳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번화가에서는 단순히 돈을 구걸하는 사람 뿐만이 아니라 대놓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나 골목에서 마약처럼 보이는 주사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도 보았다. 해가 일찍 저물어서 저녁에는 특히 더 혼자 다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영어공부를 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확실히 유익했다. 수업시간 내내 영어로 활동을 하고 홈스테이 집에서도 대화를 하고 밖에 나가서도 낯선 사람들과 대화하는 등 영어를 사용할 기회는 충분히 많았다.

영어를 익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캐나다, 벤쿠버의 문화를 알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7.사진보고서(6장이상)

		
시모어마운틴에 올라가서 스노우슈잉을 하는 모습		빅토리아 주의사당의 야경
		
하버센터에서 바라본 벤쿠버 야경		캐필라노에서 본 자연경관
		
디어 레이크 파크에서 본 해지는 모습		상점들이 모여 있는 개스타운